



노안성당 ⇄ 나주순교자 기념성당 (총거리 12.9km)

천주교 광주대교구

신앙 선조들과 함께하는 천주교 광주대교구 도보성지순례길

도보 (성지) 순례 안내



‘주님께 힘을 얻어 순례길에 오른 사람 복 되니라.’ (시편 84,5)



나주 순교자 기념경당



1839년 기해박해 때 나주에서 순교한 공주 출신 이춘화(베드로, 33세), 1866년 병인년에 홍선대원군이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령을 내린 시기의 막바지인 1871년 나주에 잡혀와 그 다음 해인 1872년 피로써 신앙을 지킨 나주 무학당의 세 분 순교자-전북 용담 출신 강영원(바오로, 51세), 경상도 출신인 전복 무장 암퇘지 사람 유치성(안드레아, 48세), 그리고 전남 장성 삭발리 사람 유문보(바오로, 60세(?)) -의 위대한 믿음과 삶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빈 무덤 형태의 경당을 통해서 현대를 사는 나약하고 감각적인 인간들에게 참된 믿음(신덕, 信德)의 길을 보여준다.

천주학을 믿지 않겠다는 단 한마디를 못해서 조석으로 내리치는 매질을 당하면서도 조만파(아침, 저녁, 기도)를 거르지 않고, 이승이나 저승이나 모두 하느님의 주관 아래 놓여 있음을 알고 굳건하고 의연한 자세로 믿음의 표양을 보며 치명하는 영광을 얻어, 천상복락을 누리는 네 분 순교자를 기리고 그분들의 영성을 되새기는 소중한 체험을 얻을 것이다.

노안성당(등록문화재 제44호)



성당의 붉은색 때문에 생긴 6.25 전쟁 관련 일화가 있다. 영광 불갑사에 본부를 두고 있던 빨치산들이 노안 성당을 불 지르려고 계량마을로 들어섰는데 언덕 위에 있는 성당이 불길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보고 '다른 병력들이 먼저와 성당에 불을 질렀구나.' 생각하고 되돌아갔다. 놀랍게도 이런 일이 세 차례나 있었다. 건물 전체가 붉은 노안 성당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빨치산들이 멀리서 성당이 불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 것이었다. 이 사건은 당시 제5대 교구장이었던 현 하롤드 대주

현 하롤드 대주교 기념관



이곳, 지금 내가 사는 땅에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간절한 꿈을 갖고 이역만리 떠나면 곳에 와서 물설고 낫설은 세파를 헤치며 지상의 하느님 나라의 교회 건설에 앞장선 한 외국인 사제의 숭고한 삶을 통해 망덕의 극치를 볼 수 있다.

하롤드 헨리(Harold Henry) 대주교님은 사제 생활의 대부분을 한국 교회 발전에 몰바쳐 나주 본당 초대 주임신부, 광주대교구 5대 교구장, 제주교구 초대 교구장을 역임하시면서 수많은 교회를 짓거나 그 터를 마련하시어 오늘날의 교회건설에 밑바탕을 만드셨다. 현 대주교님은 1932년 사제가 되신 후 사제 생활 43년 가운데 38년을 한국에서 보내시면서 선교 불모지인 전라도 땅에 복음화의 불길을 당기시고 남다른 사회운동가로서 낙후된 이 지역의 교육과 복지, 의료구호와 사회개발 사업에 많은 공적을 남기셨다. 사제양성을 위해 우리나라 두 번째 신학교인 광주대건신학교(현 광주가톨릭대학)를 설립하고, 청소년 교육사업을 위해 살레시오 수도회를 유치하시고, 의료사업을 위해 성요한 수도회와 신자들의 영성을 위한 예수 고난회를 초청하고 성당 부지를 마련 하는 등 선교와 복음화를 위한 일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분이시다.

미사시간 안내

나주순교자 기념성당		문의 061) 334-2123	
월	06:30	화·수	19:30
목	10:00	금	19:30
토	19:00	주일	06:00, 09:00, 10:30
주소 : 나주시 산정동 18-2			

노안성당 문의 061) 336-8900

토	20:00	주일	10:00
주소 : 나주시 노안면 양천리 780			

※ 노안성당에서는 단재로 순례하는 신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미사봉헌이 가능합니다.

교통편 - 버스

나주 → 양천리(노안) / 양천리(노안) → 나주

운행간격	50분 - 1시간 (30분소요)
막차	저녁 9시 / 저녁 8시
요금	성인 1,100원 / 학생 800원

도보성지순례 유의사항

- 1. 도보순례를 위한 준비물은 간단하게 꾸리는 것이 좋습니다.
- 2. 도보순례를 하는 동안에는 가능한 사담이나 잡담을 삼가해 주십시오. 집중력이 저하되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3. 약 40-50분을 걸은 후 10분 간 반드시 휴식을 취하십시오. 그러나 개인이나 단체의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 4. 식사나 숙박에 필요한 사항은 역시 스스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야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당 사무실에 연락하여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 5.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로 신속히 연락하십시오.
- 6. 산행시에는 야생동물의 습격이 우려되므로 혼자서 순례하는 것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바치는 기도

자비로우신 주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떠난 믿음의 조상아브라함과 친척엘라사벳을 돕기위하여 길을 나선 겐손과 순명의 여인 마리아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듯이 지금 길을 떠나는 저희를 돌보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어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또한 주님께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길에서 얻는 기쁨과 어려움을 이웃과 함께 나누게 하소서. 하느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희망, 사랑의 생활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의기도)

순례의 길을 마치면서 바치는 기도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저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모든 일에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기뻐했던 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을 주님께 봉헌하며 청하오니, 건강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가 가족과 이웃에게 주님의 참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아울러 이 세상에 살면서도 늘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지상의 나그네로서 하느님 나라에 대한 굳은 믿음과 희망을 자니게 하시고 이 순례의 끝에 주님께서 마련하신 사랑의 천상 천지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광송)

